

나의 서원 나의 신행 (II)

# “동정 받는 장애인 보다 세상과 발맞춰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동한 이사장



이동한 이사장은 ... 1951년 제주 출생 제주대 경영학 박사 탐라대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동국대 행정대학원 수료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춘강 대표이사 메이즈랜드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장애인이라고 특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배고프다고 빵만 주면 자립 할 수가 없어요. 기술을 통해 스스로 설 수 있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갖추어야 해요. 저의 서원은 장애인들이 당당히 자기 실력을 쌓아 세상과 발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구제의 원을 세우고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뜻을 되새기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동한(62세, 법명 춘강)사회복지법인 춘강 이사장은 지난 6월 1일 제 22회 호암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했다. 오랜 시간 장애인 복지에 매진하며 보시행을 실천한 그의 서원에 세상도 감동한 것이다. 이 이사장은 지난 1987년 11월 사회복지법인 춘강을 설립해 사회복지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본인 역시 2세 때 앓은 소아마비로 2급 중증장애인이지만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육체적 장애마저 무색하게 했다.

### 장애인도 능력 키워 자립 기반 마련해야

“저는 장애를 가졌지만 다행히 사업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세상과 격리된 채 살아가는 것이 늘 안타까웠지요. 그들을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막연히 돕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산 복지 경제 복지 모두가 이뤄져야 해요. 장애인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제 사명이라 생각했어요”

그는 장애인복지관에 작업 재활 시설과 더불어 작업장을 만들게 된다. “중증장애인이나 집에서 돌봐줄 수 없는 장애인들을 제외하고 작업 능력을 갖춘 장애인 1천여명을 고용하면 생산성 있는 기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들이 재활 시설을 통해 신체적 어려움을 조금씩 극복하고 또 기술을 익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 좋을 것이라 생각 했어요”

이 이사장은 이후 장애인들을 고용해 직업 훈련을 시키고 다양한 사업에 도전한다. 세탁 공장, 장호 공장, 피혁·귀공속·목 공예 칼라 믹스 등의 사업을 시도하며 생산성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펼치는 모든 사업에 있어 목표는 하나였다. 장애인이 단순히 제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품 그 자체로 인정받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

“당시 장애인이 만드는 제품이라고 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이 안 좋았어요. 조잡한 물건 만들어서 싸게 팔며 사람들 동정심에 호소한다는 인식이 강했죠. 저는 품질 향상을 가장 우선으로 했지요. 장애인이라서 팔아준다 그런 말 듣기 싫었어요. 정말 제품이 좋아서 팔아준다는 말을 듣고 싶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했어요. 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게끔 배려했죠”

물론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룩한 사업들은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꾸준한 노력 끝에 피혁 공예 사업은 6만불 수출이라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그리고 춘

강은 장애인 고용개발의 모델이 되었다. 이런 그의 성과를 인정받아 춘강은 2002년 월드컵 당시 유망 중소기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 “사회복지법인이 만든 기업에서 이런 성과를 낸 것은 최초일 겁니다. 춘강은 장애인 고용시설의 좋은 모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죠”

### 사회사업가 어머니 오태인 여사를 본받다

그가 이렇게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늘 이웃의 고통을 함께했던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어머니 오태인 여사는 제주도에서 유명한 사회사업가였다. “어머니는 배고픈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면 발뺌하고 나섰어요. 제주도 바닥에서 우리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베풀었죠. 제주도민들에게 수여되는 만덕 봉사상, 제주도 적십자사 봉사 대상을 받을 정도로 지역에서 인정받던 분이셨어요. 잘 곳 없는 보부상들이 제일 먼저 들리는 집도 우리집이었죠. 먹을 것이 없어 찾아 오는 사람들에게도 된장 고추장 찬거리 등을 아낌 없이 나눠 주셨어요. 남을 돕는 일에는 팔을 걷어 부치셨죠. 그렇게 어머니는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원천이요 밑거름이셨던 분이예요”

### 소아마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 체력장 참가 못해 희망 고교 '좌절'

### 이후 계량기사 자격증 취득 사업 매진

### 수익금으로 사회복지법인 춘강 설립

### 장애인들 재활과 직업 훈련에 '최선'

### 제 22회 호암상 사회봉사상 수상

### 국제빈곤구호사업에도 힘쓸 터

그의 어머니가 더 존경스러운 이유는 녀석하지 않은 살림을 쪼개서 이웃들에게 베풀었다는 사실이다.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홀몸으로 포복상을 하며 6남매를 키워야 했는데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면 없는 살림에 밥을 차려주고 잡자리를 제공했죠.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늘 어머니를 닮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제 삶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깨끗한 어머니에게도 장애인 아들은 늘 가슴 아픈 현실 그 자체였다. 7살이 되어서야 겨우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는 아들의 장애가 자신 탓이라는 죄책감이 그녀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비가 오는 날이면 온 몸이 흙탕물 범벅이 돼서 들어온 이 이사장을 불뚱과 설움에 복받쳐 대성 통곡 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결심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자. 강인한 의지를 갖

고 비장애인들과의 경쟁에서 지지 말자’ 늘 어머니를 존경해 마지않던 이 이사장은 누구를 원망하기 보다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위해 노력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많은 책을 읽으며 모범생이 됐다. 어머니가 우울해 보이는 날은 희심곡(부모은중경)을 불러주며 그녀의 마음을 풀어주었다.

### 장애인에게 베풀었던 세상을 만나다

이렇게 어머니의 따뜻한 보호를 받던 그가 세상의 냉혹함을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다. “의대에 진학하고 싶어서 일단 고등학교를 서울로 가보자고 마음 먹었어요. 당시 보성고로 입학 시험을 치렀는데 체력장 점수가 30점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저는 장애 때문에 체력장을 치를 수 없었으니까 0점 처리가 됐지요. 당연히 보성고는 떨어졌어요. 그때 세상이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냉혹한지를 깨달았 습니다”

이후 이 이사장은 고향인 제주의 학교로 진학하며 좀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고민 끝에 기술 시험에 매달리게 된다. 그는 제주도 계량기사 자격증 1호를 취득하고 더불어 상수도 시공기술 자격증도 따다. 제주도서 최초 계량기 사업을 시작해 사업에도 성공하게 된다. 또한 83년에는 조정면허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는데 이 또한 제주도 조정면허 1호로 인정받으며 조정사업에도 뛰어드는 발판이 됐다.

이렇게 잇따라 사업에 성공하면서 그는 복지 사업을 일으키는 발판을 마련한다. 이후 더불어 살며 이웃과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온 이 이사장은 장애인복지 전문 법인인 춘강을 설립해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제주춘강의원 등을 개원해 제주지역 장애인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과 한국장애인재활협의회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의회장과 제주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을 맡고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복지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88올림픽을 기점으로 복지관 건립이 활성화 되면서 본격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생각보다 일찍 기회가 찾아온거죠. 늘 장애인들과 더불어 가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 나를 지켜주는 기도의 힘

그의 이런 성과 뒤에는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겠다는 기도의 힘이 있었다. 그의 기도는 신실한 불자로 늘 기도하며 남을 돕던 어머니의 삶을 본받은 것이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은 조식으로 염불하는 모습이었죠. 해가 뜨면 일광보살님께 달이 뜨면 원공 보살님께 부엌에 가면 조양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가 생활화된 분이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불교를 공부했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어머니가 그랬

## 업장소멸 법률태 法輪臺 서울전시회

일시: 불기 2556(2012)년 6월 21일(목)~27일(수) 오전  
장소: 서울 백악미술관(조계사앞) 1층 / 전화: (02)734-4205  
문의: 덕유산청다향 (055)941-1083, 010-4595-0017, 010-3852-9500

### 법률태 유래와 의미

양나라 때 선해대사 부협 현풍으로부터 제작, 대정 17년 고려 명종에 건립, 그리고 티베트 사원에서는 법률태에 경전과 소원을 비는 글을 넣고 돌리면 소원을 이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비전으로 전하여 오는 전생록(경전)을 살펴 보면 이생에서 각자가 갚아야 할 전생의 빚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빚을 갚는 의식으로 금강경에 이름을 적어 넣습니다. 그리하여 금반 조성되는 업장소멸법률태에 수많은 경전을 봉안하여 법사리로 친견하고 있습니다.

- 덕유산 청다향 -



# 당당히 살도록 돕고 싶었죠”

듯이 보살도를 실천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불자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런 어머니의 원력을 본받아 춘강복지법인에 춘강정사를 설립하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늘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직원들도 이사장의 하루가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마무리한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기도는 절실하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랐으니 저도 조석으로 집에서 또 직장에서 불공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집을 비우는 날에는 아내나 자녀들이 대신 기도를 하죠.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기도가 오늘의 저와 저희 복지법인을 있게 한 원동력입니다”

늘 손님들로 북적였던 그의 집에는 스님들도 자주 들러 법문을 들려주곤 했다고 한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자주 들리던 스님들이 많았어요. 당시 스님들이 한 자락 씩 들려준 법문들이 다 인생의 밑거름이 됐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법문 중 하나가 어느 스님이 해주신 의상대사 말씀이었어요. ‘중생은 자기 그릇만큼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은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됐어요. 상황을 원망하기 보다는 제 자신을 긍정하고 세상을 도울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싶다는 서원을 했죠”

### ‘해의 구호사업’의 서원을 세우다

이런 그의 서원은 사업과도 연관성을 맺게 된다. 지난해 4월 개원한 세계 최대 규모 미로공원 ‘메이즈랜드’가 그 대표적인 예다. 수익금은 국제빈곤아동 구호사업으로 회향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3분의 1을 장애인, 이주노동자, 은퇴 노인 등으로 구성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메이즈랜드의 돌 미로 바람 미로 등은 온갖 번뇌와 고통으로 살아가며 갈림길에 서 있는 인간의 여정을 표현했죠. 아직은 초기 투자비용 때문에 적자 상태지만 앞으로 생기는 수익금은 국제빈곤구호사업으로 사용할 겁니다”

이제 그는 국내를 넘어 해외 장애인들을 위한 살



이동한 이사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은 지난 6월 1일 호암재단에서 주최하는 제 22회 호암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했다.

### 이웃들에게 늘 보시하는 신심 깊은 어머니 본받아 복지관 내 춘강정사 설립 조석으로 기도하는 삶 실천해

을 살겠다는 원을 세운 것이다. 그래서 이번 6월 1일 수상한 호암상 수상금 3억원 전액 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전쟁 등으로 팔과 다리를 잃고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는 동남아 장애인들에게

의족과 의수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남아 국가에 우리 복지관 모델을 전파하고 싶어요. 그들 나라는 아직 복지관 개념이 뚜렷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복지관 문화는 그들에게는 훌륭한 롤모델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국내를 넘어 국외에서도 장애인들에게 무외시(無畏施)를 실천하는 불자로 여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한편, 이 이사장은 ▷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의회장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대의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포상 경력으로는 ▷국민훈장 서류장 제16730호 ▷국민포장 제4149호 ▷제주시민상 ▷적십자 박애장 금장 등을 수여했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참여한 이동한 이사장이 농협으로부터 수여받은 쌀을 푸드마켓에 전달하는 장면 (사진제공=춘강)



소외 이웃을 찾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는 이동한 이사장 (사진제공=춘강)

###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명예교수

### 합성

합성이 들린다. 3월의 독립만세 소리, 4월의 독재타도 합성, 5월의 민주화의 합성이 이 땅에 변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합성은 곧 변화요, 합성은 신천지를 의미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알게 되었다. 빼놓을 수 없는 6월의 합성도 들린다. 일전에 동작동을 지나게 되었다. 국립묘지 앞을 지나며 오른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청춘에 간 용사의 영혼이 아른거린다. 낯선 산야에서 조국을 지키다 가신 영혼이 아니던가. 새가 절규한다. 씬 없이 절규한다. 전선에 보낸 남군을 영영 보지 못하게 되어 까막과부의 원혼이 새가 되어 백주에 저리 짖어 대는 것이 아닐까.

합성은 어느 시대나 장소에 국한 되지는 않는 듯 하다. 동토를 헤집고 맨 얼굴을 드러낸 북수초, 온 강토를 꽃동산으로 수놓은 개나리, 진달래가 지고 난 후 구절초 사이에 영산홍이 꽃이슬을 함초롬히 흠뻑 먹고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몇 일이 지나자 구절초 사이에 꽃부리가 전신을 떨구고 있는 것이다. 군자란이 꽃부리가 한겨번에 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던데 영산홍이야말로 군자의 기상을 빼다 박아 놓은 듯 하다. 저런 피땀한 절규가 어디에 있었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저렇게 온몸으로 절규하다가 핏빛으로 물들었을까. 그 이유를 알아 무엇하리. 그냥 온몸으로 항거한 어떤 합성이 메아리가 되어 깃가에 맴돌고 있다. 그리고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연못에 살포시 앉은 송화가루를 본다. 작은 물결이 일어도 이리저리 밀리며 온갖 형태를 그리고 있다. 그들의 갈색이던 무엇에 비견할 만 할게 없는 듯 하다. 바닥이 깊은 길드리라 한들 아무렇지 않다는 듯 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어느 때는 저들의 유희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문인끼리 모여 자기의 글재주를 겨루고 있는 백전장(白戰場) 같기도 하다. 연못 가운데 있다 해서 장원이 되고 밀려 송화가루가 연못가에 베풀어 마냥 엉켜 있다하여 차상이니 차하로 끊는 것이 아니냐고 불평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종족번식에 전념하고 있을 뿐이다. 신발에도 묻어나는 송화가루에서 강한 집념을 엿볼수 있다.

요즘 도토리알 만한 송방울이지만 성숙한 수송방울 하나에서 십만 개까지의 꽃가루가 생긴다니 꽃가루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다.

바람에 날리는 풍매화 꽃가루는 직경이 0.01~0.06 밀리미터로 작고 소나무 꽃가루처럼 공기주머니를 가지고 있다. 바람이 분다는 것은 단순히 나뭇잎을 살랑거리게 하는 행위가 아니다. 소나무에 있어서 바람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꽃가루를 작게 많이 만들어 날려도 기껏해야 한 두 개의 꽃가루가 암술에 도착하게 된다 할 것이다.

이슬람 여성들이 얼굴에 걸치는 검정 부르카가 저 노란색으로 바뀐다면 더욱 신선해 보일 것만 같다. 모든 것은 유행을 따르기 마련이고, 그 유행은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없는 일이다. 어느 시점에 복고풍이 유행하게 되면 검정으로 바뀌지라도 말이다.

난초의 만지 같은 씨도 이끼의 작은 흙씨도 양귀비의 작은 씨도 미풍만 불어도 날아간다. 종력의 힘에 비견할 바 아니지만 연약한 나뭇잎을 건드리고 지나가는 바람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바람은 소중한 생명체의 종족번식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난초가 돈이 된다고 가방을 메고 허겁지겁 산야를 누비며 난을 채취하려 다니는 사람을 더러 만나게 된다. 이렇게 이기심이 발동한 사람의 손을 타서 잘 자랄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사람의 힘으로 탈속한 자연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어미 난초, 새끼 난초가 느끼던 그 바람 말이다. 그들만이 속삭이고 그들만이

### 합성, 시대나 장소에 국한 안돼

난초향, 만인이 누리면 천복

의연한 이끼에서 삶 진면목 발견

주체성없는 삶은 '부평초' 같아

웃을 수 있었던 그 밀어낸 인간은 왜 앓아가는지, 이 강산에 난이 있으므로 그 향은 만인이 누릴 수 있는 천복(天福)이 된다. 그러나 나의 소유물로 했을 때 이기적인 극소수의 사람만의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도량에서 합성을 듣는다. 연못에서도 합성을 듣는다. 저 영글디 영글 바위틈 절벽에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소나무를 본다. 소의 천원에 불은 고들개마냥 풍상을 겪으며 버티어 낸 이끼를 본다. 인간은 인고의 세월을 말로 표현하고 있으나 그들은 온몸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철 잊은 합성이 아니던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송고한 것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서서 드러내고 앉아 드러내지 않아도 낮게 누워서도 비굴하지 않고 누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도 의연하게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이끼의 모습에서 삶의 진면목이 무엇인지 조금은 터득하게 된다.

어느 선사의 '수처작주'란 가르침이 그들에게는 호사스러운 말일 뿐이다. 습취고, 수분을 저장하고 내뿜는 일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주체성이 확립된 행위이다. 주체성이 없는 삶은 부평초와 같다 하겠다. 고귀한 인격도 스스로 저버리고 뽕과 거러하는 삶은 빈축 받을 만 한 일이다.



## LEADER



#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를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바랍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임입니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남·여 행사(에비스님)모집